

순창장류축제 차별화된 먹거리 풍성

순창군, 1읍면 1메뉴 시식·평가회 갖고 읍·면별 대표 메뉴 최종 확정

순창군은 지난 8일 쉼랜드에서 '1읍면 1메뉴' 시식·평가회를 개최하고, 제20회 순창장류축제 먹거리부스 운영을 위한 읍·면별 대표 메뉴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읍·면장, 부스 운영대표자, 우석대학교 RISE 추진단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평가회는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각 읍·면이 준비한 주메뉴를 직접 시식·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맛과 특색, 상품성, 가격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마지막 보완 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군은 올해 장류축제에서는 기존의 내부 평가 방식을 넘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직접 맛과 품질,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된다고 전했다.

방문객이 현장에서 음식을 맛본 후 평점을 매기면 이를 집계해 1·2·3등을 선정하고, 축제가 끝난 후 시상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 의욕을 높이고 방문객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정맛



순창군은 지난 8일 쉼랜드에서 '1읍면 1메뉴' 시식·평가회를 개최하고, 제20회 순창장류축제 먹거리부스 운영을 위한 읍·면별 대표 메뉴를 최종 확정했다.

나는 먹거리와 다양한 미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메뉴 가격은 읍·면 부스별로 동일하게 책정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각 부스는 지역 특색을 살린 메뉴만 판매하도록 하여 중복 없는 차별화된 운영으로 먹거리 부스는 한층 풍성해 질 전망이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의 장류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 주민들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1읍면 1메뉴' 선정과 시식회를 통해 가격과 품질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장류축제를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담양군, 자매결연 협약

공동 번영 위한 상생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과 전라남도 담양군이 9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상호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정철원 담양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장병영 담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민간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인적·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행정, 문화, 교육,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약속했다.

특히, 양측은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공동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연대를 강조하며, 공동 관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대학협력위원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8일, 남원시 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성호)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남원시 대학협력 기본계획(안)을 심의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위기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본계획 △글로벌

캠퍼스30 등 대학혁신·지역상생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을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산업 연계 △청년 정주여건 개선 △글로벌 교류 확대 및 국제화 △교육·연구 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주기반 확충 △창업·산업 연계 △문화·교통 인프라 개선 △외국인 유학생 지



원 △지역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논의하였고, 대학협력위원회를 통해 단순히 교육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을 매개로 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확립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향사랑기부로 남원 응원해요”

남원시, 전북자치도청 찾아 기부제·담례품 등 홍보 나서

남원시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 청사를 찾아 직원 및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 홍보와 관련해 행사를 추진했다.

남원시는 기존 제공되던 담례품을 올해 하반기에 신규로 확장해 선정된 담례품을 전북도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2025년 고향사랑 기금사업 성과 사진을 전시, 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과 더불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시 유치를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민들이 남원시의 담례품을 보다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김부각 △사인머스캣 △도라지정과 △황진이 △참기름·들기름 세트 △조청 세트 △추어탕 △화장품 등을 전시하였으며, 특히 △김부각 △사인머스캣은 시식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즉석에서 기부하는 자에 대해 소정의 김부각 선물 세트와 도라지정과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해 현장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의 고품격 담례품을 많은 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감동이 있는 담례품으로 보답하는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남원시보건소는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집중 발생 시기(9월~11월)에 접근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쯤쯤가 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전체 환자의 70%가 가을철(9월~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감염 시 평균 10일 이내에 발열, 두통, 오한, 소화기계 및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며,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형성되기도 한다.

남원시보건소는 농업인, 고위험군, 시민 등 총 22,172명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과 주요 산책로 6개소에 기피제 분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기피제 12,650개를 배부했다.

또한, SFTS의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동물병원과 애견샵을 대상으로 2차 감



염에 대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 기관에 교육자료를 배포, 전 시민 대상 진드기 예방 교육 및 홍보

를 강화하며, 현수막과 누리집,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예방수칙 안내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에 적극 대비할 예정이다.

예방 수칙은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야외활동 시 긴옷, 목이 긴 안방, 장갑, 모자 등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4시간 마다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샤워하기 △의심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야외활동력 알리기 등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반려동물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신청·접수

임실군이 군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올해도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특히 반려견을 포함한 가족과 야생동물로부터 감염될 위험이 있어 예방이 필수적이다.

이번 무료 접종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

며, 접종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관할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군에서 지정한 접종일과 장소에서 진행된다.

군은 접종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제공하며,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소방서, 하반기 소방전술훈련평가 실시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현장 활동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소방전술훈련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 직무 분야별 개인 전술능력을 점검해 재난 현장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화재, 구조, 구급, 장비, 안전관리, 소방시설 등 6개 분야의 이론평가가 새롭게 도입돼, 실기뿐 아니라 직무 전문지식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위급 소방공무원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 △맨홀 인명구조 △정맥로 확보 △흡입 및 산소투여 등 현장 상황을 가정한 실기훈련과 직무별 이론시험이 병행된다.

임실소방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갖춘 평가관을 배치하고, 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직접 순회하며 평가를 진행한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군, 11일까지

방역소독초소 근로자 모집

순창군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소독 인력을 모집한다.

군은 오는 11일까지 관내 거점소독초소 및 농장통제초소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24명을 공개 채용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원은 특별방역기간인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6개월간 현장에 투입된다.

근무지는 가남 및 생암 거점소독초소(20명), 동계 거점소독초소 및 농장통제초소(4명) 등이며, 각각 3교대 근무와 주간 고정 근무(08:00~16:00)로 운영된다.

채용된 인원은 축산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을 오가는 차량과 사람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